

배상 - 성경의 증언

**"그러면 주님의 면전에서 회복의 때가 올 것이며,
그분은 다시 여러분이 임명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그는 만물이
최종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20,21

회복이라는 용어는 회복을 의미하며, 사도 베드로가 첫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의 일부로서 회복의 시기가 있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낙원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목적의 성취는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에덴에서 인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취소하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 즉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5,6). 그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두 번째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신성한 율법을 범하기 전에 누렸던 완전함과 행복을 상상할 수 있다면, 모든 축복과 함께 잃어버린 낙원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될 때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동산은 그리스도에 의해 관리되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온 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샘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다

오늘 본문 앞 구절에서 사도는 "상쾌한 시간"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임재"라는 표현은 "주님의 얼굴에서"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을 향해 나타난다는 생각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사도가 요약한 완전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에게 사랑과 친절을 비추며 인간을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축복하는 시기를 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회복의 때"를 예언했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말을 남긴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30번째 시편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이를 언급합니다. "그의 진노는 잠시뿐이요 그의 은혜에는

생명이 있나니 밤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첫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완벽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 불완전했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은 그들과 온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슬픔과 죽음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12; 3:23

이 죽음의 형벌이 6천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원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잠시 동안"이었으며, 각 개인에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몇 년의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호령의 밤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류를 향해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은 우선 아들을 인류의

구속자로 보내심으로써 나타났으며, 그분이 구속하신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두 번째로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이 "그의 은혜는 생명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미소를 지으실 때 질병과 죽음이 종식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죄와 슬픔, 죽음의 긴 밤이 기쁨의 아침으로 끝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의 역사

다가오는 회복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님의 대변자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를 언급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무덤의 권세에서 대속하고 죽음에서 속량하리라. 사망아, 너의 재앙은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멸망은 어디 있느냐? 호세아 13:14

방금 인용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속과 사망의 멸망을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대속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철학을 설명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베드로전서 3:18).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려는 목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한 중보자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는 때가 되면 증거를 받으시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5,6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혜택은 지식과 믿음의 조건에서만 개인이 누릴 수 있으므로 사도는 이 지식이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지식을 증언할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 이후인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베드로는 '구속의 때'에 관한 사실은 창세 이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증거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러한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예언 35장에서 그는 소경의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의 귀가 들리며 병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앓은뱅이가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백성에게 거룩함, 즉 완전성에 이르는 길인 '고속도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평탄할 것이며,

배우지 못한 평범한 길가는 사람이라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평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때에 관한 다른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 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사야 35:5-10; 11:9; 하박국 2:14

선지자는 이 길에 사자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사야 35:9). 베드로는 현재에 대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8). 사도 요한에 따르면, 사탄은 구속 기간의 맨 처음에 결박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1,2). 따라서 선지자가 생명과 낙원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는 사자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고속도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서 "굶주린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여러 가지 짐승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들 중 일부는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한 여러 종류의 짐승 같은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모든 "짐승"은 멸망할 것이므로 "굶주린 짐승이 그 위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사야 35:9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이 고속도로를 통해 "주께서 대속하신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이고 시온에 이르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참으로 그것은 인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그들이 죽음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생명의 기쁨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전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왕국의 의로운 법에 순종하면 그들은 계속 살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부하게 하는"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22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당시 살아있는 세대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회복의 범위를 심각하게 제한하며,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고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오려면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창세기 12:3, 28:14). 따라서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보상은 부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욥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느냐 내가 정해진 날 내내 기다리리니 나의 변화가 오기까지 내가 기다리리이다"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네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네 손의 일을 사모하리라." (욥 14:14,15). 이처럼 욥은 무덤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동의하시며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인자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셔서 더욱 포괄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28,29

회복되어야 할 소돔 사람들

에스겔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그는 소돔 사람들과 같은 악한 사람들도 회복의 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실함을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부활에 대한 희망을 상기시키며 "너희 자매인 소돔과 그녀의 딸들이 예전의 땅으로 돌아갈 때, 너희와 너희 딸들도 예전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6:55

물론 이것은 신성한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악인에게 보편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소돔 사람들에 대해 심판의 날에 특정 유대 도시 사람들보다 소돔 사람들이 더 건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15, 11:24).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회복의 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특정 유대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소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유리할까요?

유대 민족은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소돔 사람들보다 더 큰 지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큰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행한 큰 일이 소돔에서도 행해졌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1~23). 소돔에서 많은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 대부분은 회개하고 기꺼이 영생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올라갈 것입니다.

부활할 어린이

주님의 또 다른 거룩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예언 31장에는 어린이들의 부활에 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 특별한 약속은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에 의해 학살당한 아이들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죽음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회복하고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장엄한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라헬이 자식들을 위해 울며 위로 받기를 거부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울음을 삼가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희의 수고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후손에게 희망이 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31:15-17

다니엘 선지자는 또한 다가올 회복의 때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시대가 끝나는 큰 환난의 때에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부모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9). 다니엘은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2:2). 이것은 실제로 아담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죽음의 잠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된 회복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의 폐허를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건축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9:11).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가 적의 손에서

이스라엘로 회복될 당시 이를 보관하기 위해 지어진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아름다운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6;
민수기 17:4).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나라에 임했음을
의미했고, 이는 큰 기쁨의 시기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무엘상 4-7장; 사무엘하 6:1-18; 7:1

그러므로 다윗의 성막의 회복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서 물러나 있던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대신하여 일어날 일입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15장에 인용되어 있으며, 그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남자들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시므온[베드로]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으며, 그들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뽑아 내셨는지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이것과 일치하니 기록된 바 내가 이 후에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폐허를 다시 건축하여 세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자들이 주와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을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13-17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택하여 미래의 왕국 사업에서 주님과 함께할 작은 무리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에 대한 영광스러운 목표가 제시되는데, 이 이방인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 뽑힌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방인"도 "주를 찾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시온 산의 구원자

오바다도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예언의 마지막 구절에서 "구원자가 시온 산에 올라와 에서 산을 심판하리니 그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구세주를 한 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어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통치할 수 있으며, 그분의 통치는 세상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로마서 8:16,17; 디모데후서 2:11,12; 요한계시록 20:6

요한계시록 14:1에서 시온 산에 있는 이 구원자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요한은 "내가 보니 어린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그 이마에 그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4,000명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가 이방인 가운데서 모인 백성,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광스러운 기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는 거부했지만, 그 기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유대인 개개인이 있었지만 필요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상징적인 시온 산에 오를 '구원자'의 완전한 수를 채우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성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져 새 왕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이 되기 때문에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지녀야 합니다.

왕국 시대에 시온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구세주로 묘사되는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희생적인 죽음으로 나아간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대속 사역의 결과로 약속된 축복을 분배할 때 그분과 함께 몫을 얻게 됩니다. 선지자가 보여 주듯이 구원자들이 시온 산에 서게 되면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의 산

또 다른 거룩한 선지자인 미가는 4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와 그의 집 산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 즉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언덕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길,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고 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시온에서, 주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민족과 민족 사이를 중재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대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국가와 국가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전쟁을 위해

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각자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즐기며 살아갈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니엘 2:35-44을 참조하면 "주의 산"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국 기간 동안 세상에 분배될 회복의 축복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주목하세요. 미가서의 그림은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의 "마지막 날"로 시작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탄의 옛 질서가 큰 환난의 시기에 의해 제쳐질 것입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즉 인류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초래된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주님께 도움과 가르침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왕국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전쟁의 길 대신 평화의 길인 주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또한 메시아 왕국의 새 날의 특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과 행복의 그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조항은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 순종하는 한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보편적인 종교

하박국은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로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땅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찬만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회복의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14).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 스바냐도 당시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결한 언어를

주어 그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섬기게 하리라." 스바냐 3:9

사탄의 눈부신 영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에 의해 사라질 것입니다. 순수한 언어, 즉
교훈이 백성에게 전달되면 선지자의 말처럼 모든
인류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회복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기쁜 회복의 날에 관해 하나님을 대변한 스가랴
선지자는 에서 왕국 시대의 깨달음의 영향이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이
줄어들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날이 될 것이지만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14:6,7).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점진적인 깨달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있는 세대와 함께 세워질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와 지구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왕국에 대해 알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죽은 모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9:10). 따라서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기회를 갖기 위해 참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백성을 깨우치는 일은 왕국의 천 년 '날'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부분적으로 밝고 부분적으로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의 실명과 미신이 점차적으로 제거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세상에는 여전히 상징적인 어둠이 존재하겠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이 가까워지는 저녁에는 완전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의의 태양'의 깨달음과 치유의 영향력이 모든 어둠의 안개를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말라기 4:2

가시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재림의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 통치를 통해 분배될 축복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를

예언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축복은 참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에 관한 깨달음, 에덴 시대부터 혼란스러운 세상을 괴롭혀온 수많은 미신적 믿음의 종식,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아담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적 안정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이 모든 매우 실용적이고 만족스러운 좋은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분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속의 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의를 알고도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3:23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믿어지는 미래의 날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원래의 지배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전 세계적으로 범위와 효과가 확대되는 회복, 즉 낙원의 회복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희망일까요?

질병과 죽음의 멸망의 결과로 가져올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한 다른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참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날 결과를 상상해 보세요. 사랑이 모든 인간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원리로서 이기심을 대신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어지는 변화된 관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행복의 극히 일부분만 누리고

나머지는 실망과 슬픔으로 채워진 짧고 바쁜 삶 대신 기쁨의 영원이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룩한 예언자 중 한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4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삶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심장 박동의 철학을 말할 만큼 현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심장과 심장 박동을 창조하셨고, 불완전한 인간 피조물은 계속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한때 생명의 맥박을 멈추고 마침내 죽음의 황폐화에 굴복한 수십억 명의 인간에게 심장 박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만물의 회복"은 곧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의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날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